조르쥬 아감벤<호모 사케르> 보고서

2014117007 정지완

아감벤은 슈미트의 논의에서 몇 가지 개념을 회수해낸다. 우선 슈미트의 주권에 대한 변증적 정의는 그대로 아감벤의 전제로 따라붙는다. 그리고 슈미트의 논의가 걸리는 지점인 예외 상황은 또한 아감벤에게 와서 단순히 질서 이전의 배제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배제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획을 긋는다. 그러나 예외는 단지 배제에서 그치지 않고, 배제된 것을 다시 법의 내부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배제는 단순히 외부를 맥락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를 끌어내진 것으로서 규칙 구성의 전제로 삼는 개념이 된다.

이후에 서술되는 헤겔 식의 역사 종말과 완성된 현인에 대한 비판적 논조에서 엿볼 수 있는 측면이지만, 이 예외의 개념은 그저 변증을 포함한 역설로 파악하기엔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구조주의 언어학과 바디우의 사건 개념의 도움을 받아 아감벤은 예외를 설명하고, 나아가 정치적 담화가 발화되는 공간을 구성하는 정치 철학의 개념으로 확정시킨다. 언어는 랑그로서 시니피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비언어적 대상에 대한 시니피에의 관계 또한 드러내 보여준다. 언어가 언어 외부의 비언어성, 곧 사물을 발화의 내부로 포섭하면서 언어 외부의 외연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 언어가 랑그로 후퇴하며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임의적 관계는 일원적 원리로 환원된다. 그러나 언어는 또한 언어의 후퇴 지점 또한 지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언어는 항상 언어 너머를 가리키게 된다. 노모스 또한 마찬가지로 법의 효력 정지 지점을 지시하는데, 그 근거는 노모스가 경계 내부로 구획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

예외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바디우의 범주를 따라 우리는 사건을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현시하고 재현하는 범주와, 현시하되 재현하지 않는 범주, 그리고 재현하되 현시하지 않는 범주. 그러나 아감벤의 시각에서 예외는 이 범주화에서도 예외화된다. 예외는 그 대상을 재현하면서 현시하지 않는 동시에 현시하면서 재현하지 않는다. 노모스의 차원에서, 법의 예외 조항은 그 규범의 외부에 존재하나 바로 그 때문에 그 규범을 정의하는 핵심에 파고든다.

주권은 슈미트에서와 달리 예외를 규정하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예외가 사태의 비식별역에서 예외의 영역을 확보하고 경계를 지시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예외는 항상 홉스의 무규범적 자연 상태가 아니라 노모스의 예외로서 이해된다. 하이데거나 슈미트에 반하여 아감벤에게 삶은 죽음 위에 놓여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다. 생명은 항상 정상적 구조로 조직되어 노모스를 구성했다. 다시 말해, 저변에는 항상 사케레가 흐르고 있다.

이어서 아감벤은 조에와 비오스의 중첩을 통해 현대 정치의 특수성을 말한다. 현대의 출발점은 조에를 비오스에 일치시키라는 요구였으며, 그 수단의 미흡으로 인해 다수는 현실태로서의 비오스를 조에에 기반하여 부여받았으나 현실적 잠재의 영역에서 추방령에 의해 호모 사케르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 추방령은 그 잠재성 때문에 현실성을 획득하며, 그래서 주권이 없는 호모 사케르는 조에로 후퇴할 가능태로 인식된다. 아감벤은 추방령의 잠재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잠재의 현실성을 무력화시키기를 제안한다.

다시, 아감벤은 바로 이 시대를 헤겔과는 다른 의미에서 역사의 종말이자 무의미한 법의 종말로 인식한다. 랑그로 후퇴하지 못한 노모스는 실정의 구성을 종용할 형식을 잃어버리고, 삶에서 벗어난 대자적 현존재를 상실한다. 그러나 아직도 법이 아닌 것을 탈피한 법 앞에서 벌거벗은 인간은 무력하다. 이런 생명을 내버림에서 되돌려오기 위해, 아감벤은 추방령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이 관계와 함께 내버림이라는 규정 자체로 휘발되며, 하이데거의 어휘를 빌리자면 존재는 더 이상 존재자를 내버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권 원리가 없는 존재 규정을 사유하려는 시도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과 현실성 사이의 관계를 무화해야 하며, 존재 범주의 식별된 영역을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제시된 시도들은 주권자의 추방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주권은 추방령을 수단으로 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잠재성과 현실성 사이의 관계로 형상화된다. 잠재는 하나의 신화로서 현실의 규제를 받지 않고 활보하며, 현실은 실정과 강제로서 주권에의 복종을 일으킨다.